

2001년 12월 25일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

나는 너희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특히 너희를 위하여 아기예수를 나의 팔에 안고 온 나는 너희가 기도를 통하여 아기예수와 함께 결합되며 평화 없는 이 세상에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자녀들아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사랑하여라. 너희들의 믿음이 다른이들로 하여금 더욱 더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되게 하여라. 너희 모두를 축복하며 나의 성심과 아기예수의 성심으로 더 가까이 오도록 너희를 부른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성모님은 모든 가정 안에서 기도가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모님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셨고 성모님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신 겸손한 종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처럼 겸손할 필요가 있고 그분처럼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이들을 위해 살지 못하는 우리라면 기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모님처럼 ‘예’라고 말하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우리는 즉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 것이며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 와서 보고, 많은 것을 느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즉시 이곳에서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

메주고리에

Medjugorje

제12호

January, 2002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고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믿지를 앓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만약에 메시지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같습니다. 평화는 그 어떤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평화 속에 생활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 메시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자 하십니다.

<본지 7페이지에서 계속>

성모님과 성령의 활동



김택구 신부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찬미 예수님, 성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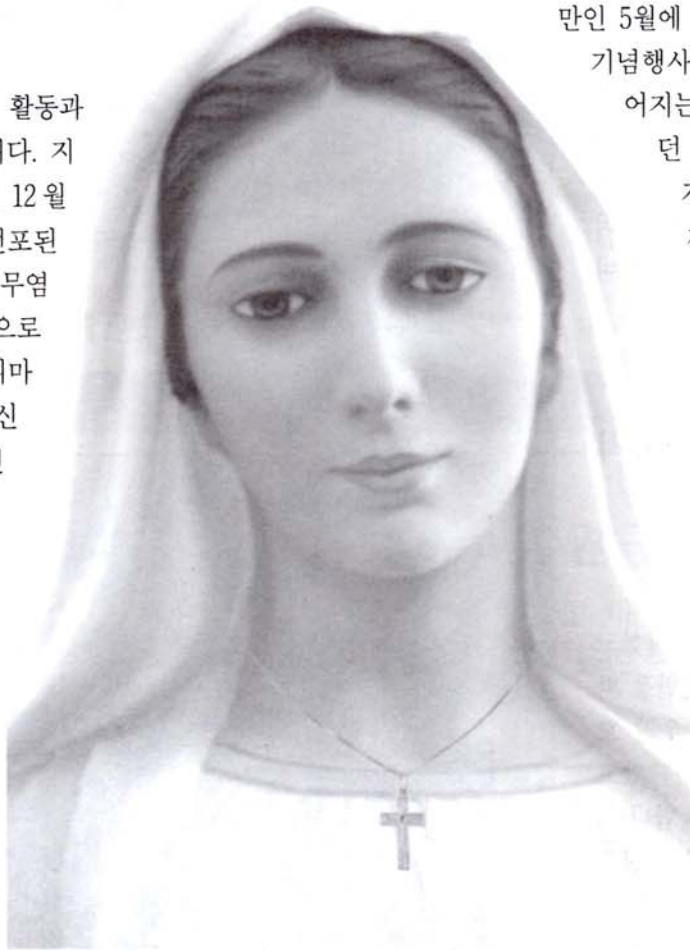
금세기는 성령과 함께 성모님의 활동과 도움이 크게 역사하신 때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선포된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즉, 무염시대가 루르드의 발현과 기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파티마의 어린 세 목동들에게 나타나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의 세계를 봉헌하고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공산주의가 멸망될 것 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목주기도로 철옹성 같았던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파티마 발현의 목격자 중 한 사람으로 지금도 생존해 있는 루시아 수녀에게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루시아 수녀의 나이가 금년 95세가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조금의 하자도 없음을 증명하시려든 듯 지금도 발현을 계속하시어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부여 받으신 당신의 사명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제 자신도 루르드 성모라는 기적에 관한 책을 읽고 사제 성소를 받았는데, 1954년 4월에 신학교에 입학했고, 한달

만인 5월에 루르드 성모님 발현 95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루어지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후 저는 개인적으로 성모님을 가까이 느끼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사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88년에 이어 2001년 11월에 두 번째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왔는데 저에게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메주고리에서의 성모님의 발현은 기도가 부족한 이 시대에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심과 동시에 물질의 지나친 풍부함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염

려하시어 그들에게도 신앙 안에서의 참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체험하게 해 주시려는 성모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메주고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높에 세워진 십자가와 그곳을 향한 거친 돌길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 길에서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려 주시어 예수님께 용기와 격려를 주셨던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



그곳에 높에 세워진 십자가와 그곳을 향한 거친 돌길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 길에서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려 주시어
 예수님께 용기와 격려를 주셨던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며,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며,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순례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참으로 가까이 와 있음을 더욱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에 함께 갔던 몇 분이 한밤중에 십자가 산에 가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는데 막상 나서고 보니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둠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 했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아지 한마리가 나타나 앞장서 가다닙니다.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고 뒤쫓아 가다보니 무사히 십자가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고, 내려오는 길은 물론이고 묵고 있는 숙소까지 바래다 주고는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사라져 버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적지않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리적이고, 학술적인 문제들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이한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도와 회개의 장소로써 수 많은 순례객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고해성사를 보고자 긴 줄을 늘어서 있는 곳이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회개와 사랑의 체험이 배려되어 있는 곳이며 감탄할 만한 성모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현을 보는 목격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우리 구원에 가장 중요한 기도(특별히 묵주기도), 고해성사, 성체성사, 성서말씀, 단신의 실천과 함께 살아있는 영성생활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기에 다시 한번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곳을 지도하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신부님들과 특히 요조 신부님의 가르침은 성모님을 통한 성령님의 지극하신 배려임과 동시에 이 세대를 구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현존하시는 성모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며 우리가 믿고 바로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는 깨우침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한 협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써 영원한 기쁨과 참 평화가 넘치고 당신이 손수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교계 질서 안에서 성모님의 인도 하심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모님 자헌축일 찬미가로 티없이신 성심께 우리 모두를 봉헌합니다.

동정녀 자비의 어머니시여
 희망과 용서의 어머니시여
 하느님 은총의 어머니시여
 거룩한 기쁨의 어머니로다

성덕의 백합와 꽃피는 계곡
 넘치는 기쁨 흘러 내리니
 거룩한 어머니 전구 하소서
 가련한 우릴 찾아주소서

성부는 당신을 창조하시고
 성자는 당신을 보호하소서
 성령은 당신을 수태케 하시니
 성삼께 큰 영광 드리나이다
 아멘 **M**



우리의 사랑하는 은인들에게...

새천년기와 이 새로운 세기의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며 제 생각과 기도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과 주님의 어머니께로 계속 흘러 나갑니다.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저도 여러분을 평화의 왕 우리 기쁨의 왕께 아주 가까이 모셔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문들이 모두 닫혀있던 그 때에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성탄을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응답을 가장 미천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죄없는 가슴 속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겪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충격과 아픔은 더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 없는 이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라는 '선'을 행하라는 교회의 끊임없는 부름에 응답하셨기에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가정 학원' 사업을 진심으로 받아주심에, 저는 요람속의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의 앞에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탑'에는 돌보아줄 보모가 없는 40명의 소녀들이 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4) MEDJUGORJE

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마음과 정신의 재능과 가치관을, 사회적, 종교적인 가치관을 일깨워주고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목적은 성 요셉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들을 후원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이 우리를 신뢰하며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며 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덕택에 우리는 악기들이 있어서 이 소녀들의 가슴속에 음악과 노래의 재능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기증해 주신 컴퓨터들은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 이토록 중요한 기술 보조기구 사용법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장소인 소성당이 실현되지 않은 꿈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야클리안 섬에서 우리 프로그램 또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섬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가슴들이 치유받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삶이 그들의 미래를 향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것을 봅니다. 매일 매일의 기도 속에서 강력하고 거룩한 수많은 체험들과 은혜 충만한 수많은 응답들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다른 상황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의 성모님과 성 요셉이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을 잊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또한 여러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탄절은 멋집니다.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은, 책들을 구하고 학원에 우리 소녀들이 함께 소중히 쓸 도서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프로그램들은 다목적용 큰 방과 끊이지 않고 성체 조배와 감사드릴 수 있는 소성당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탑”의 이 중요한 부분의 건축은 봄에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섭리와 여러

분의 사랑에 맡겨드리기에,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은인들이여, 여러분은 인류를 위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자비의 징표로 우리와 함께 또 한 해를 인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께 즐거운 성탄절과 복된 2002년 새해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길 열렬히 기도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2001년 12월 4일

메주고리에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 요조 신부 드림.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 의탁 한다면
우리는 왜 고통속에 있을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데

메주고리에의 자녀들에게



찬미 예수

성모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앉으신 새해 첫 날이 왔습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물주를 낳으신 어머니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새해에도 영적인 죽음이 더 우세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이 세상이 성모님의 망토로 보호받고 있음에 너무 너무 기쁩니다.

이 망토는 성령이 성모님께 임하셨을 때 받은 것이며 주님의 그림자로 감싸여 있습니다. 이 망토는 감기를 방지하기 위한 코트가 아니며 성모님을 언제나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모성심과 예수성심께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망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그를 끌어당겨서 성령 안에 감싸 주십니다.

오늘 날, 모든 세계의 상황이 좋다고만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여 신앙적인 희망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나누며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유함? 이것도 역시 우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업적인 성공? 이것도 아닙니다. 평온함과 모든 고민의 끝?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생을 통하여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을 갖게 되시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의 용기를 필요로 하시며 또한 그분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6) MEDJUGORJE

냐하면 “어머니의 보물은 자식에게도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어머니께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여 여러분 자신 안에서 영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바램이며 여러분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2002년에는 우리 모두 죽지않는 열매를 맺읍시다. 성모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도구가 많이 필요하신데 그것은 용기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새해 첫 날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십시오. 간곡하게 부르시는 사랑스러우신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네” 라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대답이 너무 성급하거나 경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와 기쁨이 쌍둥이 자매처럼 함께하며 당신을 천국의 문까지 동행해 줄 것입니다. 언젠가 요조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순례객들이 큰 열정을 가지고 메주고리예를 떠나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극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소수의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그 댓가로 훌륭한 열매가 맺힐 것을 압니다. 성모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경비원을 온 세상 구석 구석에 배치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모님의 망토를 그들의 속한 마을과 도시에 퍼뜨릴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태양 아래의 눈이 녹듯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증오와 두려움을 녹여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테러리스트들의 소굴을 찾고 있지요? 좋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더 잘하십니다. 그분은 중요성을 단절시키며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탄까지도 단절시켜 버리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네” 라고 어머니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조그마한 것이라도 뜻있게 동참하는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기 예수가 잠들어 있는 마굿간을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들의 어머니께서는 밀짚으로 어떻게 사랑의 침대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기예수를 기쁘게 헤드리기 위하여 그 침대에 밀짚을 더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종이에 오늘 행할 희생들을 적어서 밀짚처럼 말아 넣어드려 봅시다.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는 결코 이 밀짚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증오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밀짚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M**

<메주고리에 뉴스 중에서 - 장무갈다 번역 ->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더 이상 많은 말과 탁상공론, 머뭇거리는 것을 하지 말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가정들 안에서 기도와 단식과 성서가 읽혀 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가정에서 기도가 불가능하다면 우선 개별적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본당에는 꼭 기도하는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가정 구성원에게 양분을 제공하십시오. 어머니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먹는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의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파괴하고자 노리고 있지만 기도와 성체성사, 고해성사와 단식을 통하여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주님 앞에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 놓는 수단으로써 겸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줍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성체를 영하기 위해 줄을서곤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으로써 하나의 유혹입니다. 고해성사는 변화의 성사입니다. **M**

제 27차

기초 성령 세미나



“하느님께 당신을 맡기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당신 안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 일시 : 2002년 2월 25일(월) 부터 3월 1일(금)
- 주최 : KACC(Korean Catholic Charismatic Center)
- 장소 : Moye Spiritual Center
- 회비 : \$260 (4박 5일)
- 인원 : 45명 (선착순)
- 지도 : 왕영수 신부, 임언기 신부, 이상철 신부

- 신청 마감 : 2002년 2월 10일
- 보낼 곳 : 3356 Central Parkway
Cincinnati, OH 45225
513-559-1600 (Fax.559-1616)
513-741-0010 (Fax.741-9777)
- 연락처 : 이천균(그레고리오)
513-559-1600 / 집 513-923-2415
김정자(데레사)
513-741-0010 / 집 859-781-0258



사도행전 읽기를 위한 길잡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과 성장에 관해 전해줄 중요한 책으로,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어 ‘성령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르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성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희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차례로 극복해 나가는 신자들의 삶을 흥미 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십년 동안 말이나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즉

- 1) 예루살렘에서 처음 몇 년동안 있었던 일들
- 2) 베드로와 스테파노와 필립보의 행적
- 3) 최초 설교자들이 했던 설교의 요지
- 4)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
- 5) 바오로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전도 여행시 그를 수

행했던 삶에 의해 향해 일지까지도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이용하여 이런 자료들을 질서있게 배열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1.1-5.42 참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친교를 맺고, 성찬을 거행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가진 바를 나누고 재산을 공

동으로 소유함으로써 한 마음 한 몸을 이룹니다. 이렇게 신명나는 공동체 생활로 교회는 온 백성의 호감을 샀고, 당시 백성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힘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확장되어 가는 교회<6.1-12.25 참조> 공동체가 커지면서 교회 내의 갈등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전념하기로 하고 일곱명의 보호자를 뽑아 신도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이 큰 박해가 닥치자 유다와 사라마리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 까지 흩어져 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는 계속되지만 성령의 이끄심 아래 복음은 이방인에게 까지 더욱 널리 퍼져 갑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가<13.1-28.31 참조>. 바

오로를 중심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밖의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기면서 교회의 일체성이 위협받으며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율법규정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제자들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 구약성서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가? 전도자가 어떻게 새 공동체를 세우고 또 보살피 나가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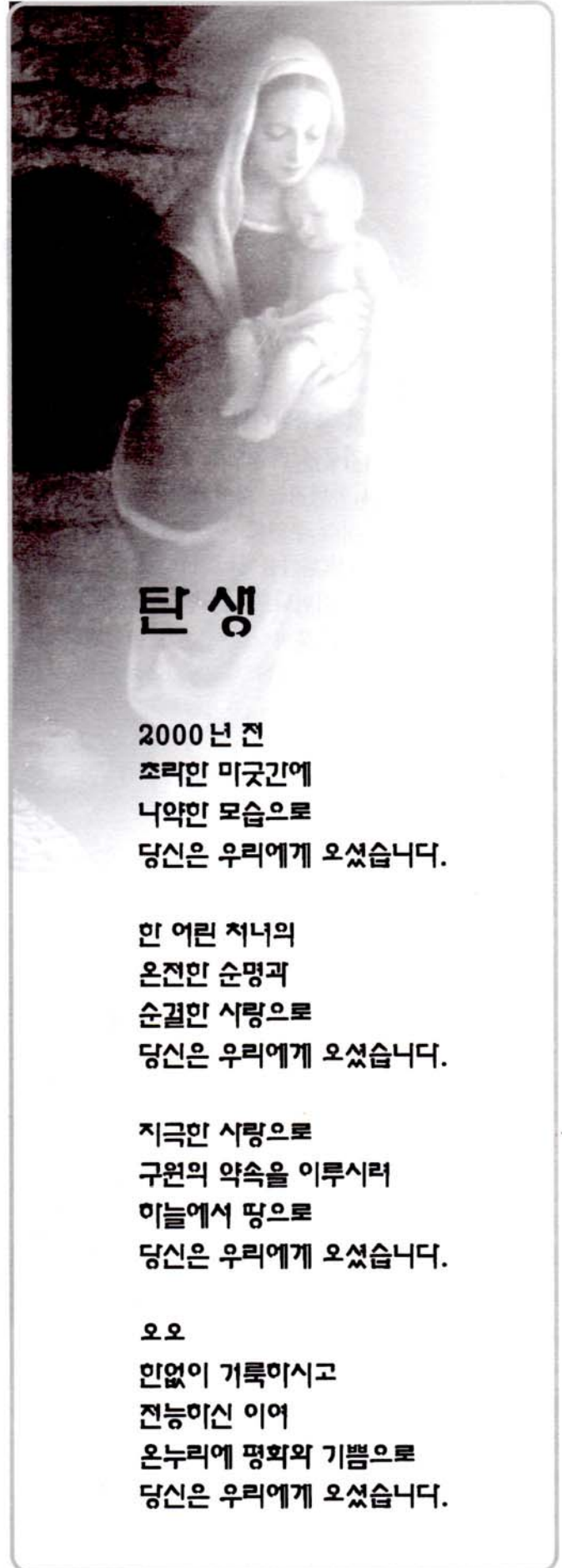


사도행전은 '희망의 책'입니다.
 이능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이면서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차례로 극복해 나가는
 신자들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성서 읽기표 (2002.1.15-2.14)

날짜	요일	장 절	check
1/15	화	사도행전 1,1-26	
16	수	2,1-47	
17	목	3,1-26	
18	금	4,1-28	
19	토	5,1-42	
20	일	6,1-15	
21	월	7,1-29	
22	화	7,30-60	
23	수	8,1-40	
24	목	9,1-31	
25	금	9,32-43	
26	토	10,1-48	
27	일	11,1-30	
28	월	12,1-25	
29	화	13,1-25	
30	수	13,26-52	
31	목	14,1-28	
2/1	금	15,1-35	
2	토	16,1-40	
3	일	17,1-34	
4	월	18,1-17	
5	화	19,1-41	
6	수	20,1-38	
7	목	21,1-35	
8	금	22,1-30	
9	토	23,1-35	
10	일	24,1-27	
11	월	25,1-27	
12	화	26,1-32	
13	수	27,1-44	
14	목	28,1-31	

읽기표 대로 성서 쓰기를 해도 좋습니다.



탄 생

2000년 전
조리한 미웃간에
낙약한 모습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어린 처녀의
온전한 순명과
순결한 사랑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
하늘에서 땅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오
인없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이어
온누리에 평화와 기쁨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이창재 부제 / 미네소타 성당

어머니는 모든 자녀의 고향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의 가문에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이요, 저의 아버지는 젊어서는 서당 선생을 하시다가 뒤에 한의로 사신 분이요, 글을 배우지 못한 어머니에게 교리문답을 해설(한자풀이) 하시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1945년 4월에 어머니로부터 입종대세를 받고 선종하시어 마침내 우리 가문의 신앙선조가 되었습니다.

그 해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에 저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세 식구가 세례성사를 받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 겨레가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이니 평생 동정인 성모님께 서는 온 인류 구원의 어머니요, 우리 겨레 해방의 어머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겨레가 일제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38선으로 남북이 갈리고, 온 나라가 혼미한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더구나 저의 집은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홀로 꾸리는 살림이니 궁색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환경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세 식구는 신앙으로 고무되어 굳건하게 살았습니다.

회상하건대, 그 때의 생활이 궁핍하기는 했으나 세 식구가 화목하였고, 저희 남매는 열심히 공부하여 어머니의 피나는 노력에 보답하자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은 세 식구가 고상앞에 꿇어앉아 저녁기도를 바치는 시간이었으니, 매일 매일을 성모님께 의탁하고 사시는 저희 어머니의 굳은 믿음으로 해서 저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벽간 희망을 안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

(10) MEDJUGORJE

하였습니다. 이는 더 없이 크신 하느님의 축복이며, 가정의 모후이신 자애로운 성모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덕분이라 확신합니다.

곧 누나는 사범학교로 진학하였고, 3년 후에 저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읍내로 이사를 가게 되니 공소 생활에서 아쉬웠던 성사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본당 생활을 하게 된 그 기쁨, 걸어서 30분 걸리는 상당을 한 다름에 달

려서 매일 미사를 참례하던 그 나날의 보람, 복되신 성체를 매일 받아 모시는 그 감격, 아버지 없는 저를 친 자식처럼 귀여워 하시는 본당 신부님,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시골 학교에서 온 촌뜨기를 어찌 보시고 부반장을 시키더니, 본당신부님은 저를 주일학교 초등부 선생을 시켰으니 저의 중학생활 1년은 학교에 가도, 성당에 가도 언제나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꿈같이 한 해가 지나가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기 변동으로 6월 초 2학년이 되고 3주 만에 6.25 전란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세계 냉전의 전초기지인 38선에서 우리 겨레는 민족 상잔의 처참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

서 전선에 나가지 않았지만, 수 많은 이웃들, 친구의 아버지 또는 형들이 혹은 좌익으로, 혹은 우익으로 서로 죽임으로서 결국 남북 형제간에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성당은 폐쇄된 다음에 인공의 내부서가 되고, 그때 본당신부님은 끌려가셨는데 결국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 하셨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

우리들의 신앙 체험

빈센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죄와 악습 그리고 좌절과 어둠속에서 헤매며 인생을 허무하게 소멸하

던 제가 오늘 제 삶의 간증 즉 빛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영접하고 그 분께서 이끄시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좋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빛을 증언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하여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이 누구 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제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지금, 제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용서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계시던 분들께, 함께 살던 젊은이들께, 그리고 나의 과격한 분노와 변덕스럽고 부정적인 성격을 잘 참아주신 분들께 용서를 청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아주 못되게 행동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여 행해졌던 불상사에 대해서, 통명스런 대답에 대해서, 또 제 동생에 대해 나쁘게 험담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보다 더 큰 빛의 증언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분노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며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댓가로 주



Vincenzo and Kimberly

Vincenzo

It's true that our life can change, if we want it to. After wasting many years of my life in evil, in sin, in desperation, and in darkness, today I am here to give testimony to life, to the light! Life changes and changes for the good if we let

God enter in, and let Him guide us. I am really happy to be a witness to the light because today I know what it is and Who it is. The most important light that I have today is the desire to apologize, to apologize to those close to me, to the young people who live with me, and to all the persons who put up with my bad reactions, my anger, and my negative moods. I apologize for the all times I react in a bad way, for the many times I don't know how to control myself, and when I respond rudely to others or, still worse, I speak badly about my brother, Today I am certain that there is not a greater testimony to the light, than meeting Jesus. Meeting Jesus means not to be what before' you can't be your old self anymore. If you meet Jesus, you can't get angry or upset anymore, and then pretend like nothing happened. The Holy Spirit speaks to you, let you suffer for what you have done, and then you feel a burning desire to be at peace again with the

..... It's true that our life can change, if we want it to.
 After wasting many years of my life in evil, in sin,
 in desperation, and in darkness,
 today I am here to give testimony to life, to the light!

시는 뜨거운 평화는 제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나 원수
 까지도 사랑하고 화해하고 싶은 열망을 불어 넣어줍
 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해 주는
 것이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할 때가
 바로 빛의 근원입니다. 용서를 청할 때가 바로 빛의
 근원입니다.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에도 그냥 묵묵
 히 침묵을 지킬때가 바로 빛의 근원입니다. 저는 두
 손 모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에서, 특히 가까이 지내던 젊은이들부터 이런 크나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으로 기쁘게 이 간
 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통해 스쳐갔던 십자
 가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도 삶
 에 대해 '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
 입니다. 저의 처음 모습이 바로 이곳에 오는 이 젊은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과 공포 속에 거
 짓말쟁이로 살아온 생애에 삶을 포기한 모습 말입니
 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빛 중
 에 빛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꺼질 줄 모르
 는 빛, 살아있는 빛의 샘물입니다. 다른 빛들은 다 전
 등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이 전등들은 끊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생명을 줍니
 다. 저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끌어안게 이끌어주며 희
 생과 자아 포기를 하던 강한 용사들에게 감사를 드립
 니다. 이분들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에게 살아갈 의
 욕을 북돋아 주어 이제는 한 가장이 되었고 얼마 안
 가서는 아기 아빠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의 가르침 안에 희생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
 매를 맺고 그 열매는 빛을 반사한다는 것과 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젊은이
 들이여! 십자가 없이 힘 안들이고 일하지 않고도 행복
 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믿지 마십

person that you have hurt, even if it is your worst
 enemy. It is not necessary to do extraordinary
 things to be a source of light for those with whom
 you live. When you apologize, you are a source of
 light; when you say thank you, you are a source of
 light; when you admit your mistakes; you are a
 source of light; when it would be easier to justify
 yourself with your own arguments and you stay in
 silence, you are a source of light. I want to say this
 with my heart in my hands, because I have received
 a lot of joy from the Community, above all from
 the young men and women to whom I have been
 closest. I am happy to be a witness to the light,
 which I have seen in the eyes of many young men
 who have passed through the cross, and have suffer-
 ed by saying, "yes" to life. I know that I arrived
 at the gates of this Community : destroyed,
 desperate, a liar, and without any desire to live. In
 these last few years, I have had the grace to dis-
 cover that the biggest sign of light is the cross. The
 cross is a fountain of living light a light that endures.
 All the other lights are just light bulbs that sooner
 or later burn out or explode. They give off light,
 but they also have a shadow. The light of the cross
 instead give life! I have to give thanks to those who
 had the courage to propose the path of the cross
 to me, as well as that of sacrifice and of
 renunciation, because these things have not only
 saved me and given meaning back to my life, but
 they prepared me to be a husband and a soon-to-
 be-father. I thank the believe that the way of sacri-
 fice bears fruit that generates light. Young people,

시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은 어둠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보다 더 큰 빛의 증언을 본적도 없고 엘비라 수녀의 눈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풍요로운 빛의 근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크나 큰 빛의 은총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이 빛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don't believe those who promise you joy and happiness without the cross and without a lot of hard work, because they lie, and a lie is the mother of darkness. The Community is the biggest witness to the light that I have ever met, and the eyes of Sister Elvira are the most precious and generous fountains of light in the world. I give thanks to God for all the light that I have received, and I give thanks because He gives me the courage to be a source of light.

메주고리에 젊은 이들과 함께 하는 란날드(Ronald)

제 이름은 란날드입니다. 저는 47살이고 미국의 브롱스(Bronx)에서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3년이 되는 15살부터 술과 마약을 해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가정의 풍파를 어머니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콜



Ronald with the youth in Medjugorje

중독자였고 하루도 집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동생들 그리고 남동생과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삶은 정말 지옥의 삶이었고 저 자신에게서 전혀 만족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우울했고 이 우울증에서 도피하는 길은 크랙(crack, 마약의 일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아마 10년 전 인것 같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무슨 획기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들은 저를 정상적인 삶으

My name is Ronald.

I'm 47 yearsold, and I come form Bronx in the USA. I started messing woth drugs and alcohol at the age of 15,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my mother. I loved my mother, but I was also blaming her because she was

making the whole family dysfunctional. She was an alcoholic, and she was never at home. She wasn't spending a lot of time with us, and my sisters, my brother, and I were using drugs. I lived that life for 35 years, stealing, selling and using drugs in the streets of New York. It was a total hell for me. I was never satisfied with myself. I was depressed, and crack became my escape path. I was trapped in the darkness for a long time. The things that were disturbing me were: who am I? where do I belong? why can't I live like a normal person? I started understanding those thing 10 years ago. The thing that

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영세를 받았고, 고백성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며,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겨운 마약의 삶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들락 날락 하고 있었고 그러는 중에 발러리라는 카운슬러를 만났고 그녀는 저에게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브롱스의 가장 험악한 곳에 집을 마련하여 가장 가난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창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수사님들은 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마약의 삶을 종식하고 싶은 것을 아시고는 신부님께서 플로리다에 있는 희망의 성모 공동체(Our Lady of Hope)에 전화를 하였고 저를 그곳까지 운전하시어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으나 처음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남과 나누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제 생애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 사니의 업매인 부분들을 보기 시작했고 도움이 필요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한편 저는 남을 도울 수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이제 새 삶을 시작했으나 처음에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남과 나누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제 생애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특히 엘비라 수녀님과 스테파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제 인생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 메주고리에 머물고 있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저는 삶 안에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고 향상시키며 삽니다. 저는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봉헌하기 원하며 계속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안에 숨어있던 진실된 란날드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의 학교인 시나콜로 공동체 덕분입니다.

helped me the most was a small change that I made. It was a step forwards towards the light of normal everyday life. I got baptized, I started going to confession, going to church, and praying. But that didn't help me to end my addiction completely. I was going in and out of many treatment centers, but the only good that came out from that was my counselor, Valerie. She got me close to a religious order called the Franciscan Friars of the Renewal. They have a house in the worst part of the Bornx, and they reach out to the real poor: drug addicts, alcoholics, and prostitutes.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my condition. They saw in me the will to stop with the drug life and one of their priests telephoned Our Lady of Hope to see if I could enter there and, then, drove me to Florida to help me get into Community. I entered Our Lady of Hope, and at the beginning there I had a lot of difficulties. Telling the truth, sharing with others, being sincere were things that I had never done before in my entire life. I started seeing many things about myself. I realized that I need help but, at the same time, I'm able to help others, as well. Community life started opening my eyes. Today I am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thanks to Community and, especially, Sister Elvira and Father Stefano. They have put back the light in my life. I'm staying in Medjugorje now, and I'm having fun here. I've got my problems, but I know how to handle them I'm going forward in Community. I'm going forward in my life. Every day is something special, something new. It is an opportunity to learn, to explore, and to umprove. I found God, and I've discovered the value of prayer. I hope to get consecrated and to continue doing the Father's will. I found the ture Ronald inside me, and I owe that to the "School of Life" called Comunita Cenacolo.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 구로동 용욱이의 편지 -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 이구요. 우리는 별집에 살아요. 별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집은 32호 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박스만해서 4 식구가 다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2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 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이 마냥 엉엉 우시길 잘 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보고 ‘술집 작부’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구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욱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전계란 두 개를 부활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구요. 몸이 아파서 누워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살 수 있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 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테니 엄마도 술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 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 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 오셨어요. 글짓

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사셔서 사이다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 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깐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다섯 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 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 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애 용욱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 만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구 여기서 계속 사는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얹게 하시고 나선 것이예요.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술방울만해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욱아,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

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천상에 쌓이는 재물

- 박명자 마리아 -

저는 뇌종양 때문에 97년 7월 24일에 2 번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뇌속에 자라고 있는 1.5cm의 악성 종양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전에 몇 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말과함께 살아난다 해도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중환자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저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 드리며 약속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몹시 어려운 상태로 지낼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 김마리아가 요양차 미국에 와서 성모님이 20년 동안 발현하고 계시다는 메주고리예를 함께 가보자고 하여서 2001년 4월에 친구의 집이 있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깊은 친구와 함께 매일 미사를 함께 다니며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15단의 목주기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날도 목주의 기도를 하던 중 짙은 장미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 아름다워 이 지상에서는 맡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현존하심을 가르쳐 주실 때 장미향기를 주신다는 이야기도 그때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면서 영성체를 할 때 입안 가득히 짙은 피냄새를 맡을 수 있는 성체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피비린내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20년 동안이나 발현하고 계시다는 메주고리예를 향하여 친구와 함께 2001

년 4월에 평화의 모후 센터가 주관하는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중환자의 몸으로 미국을 올 때도 마지막 여행이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체험을 하고 나니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성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각오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먼 여행길 후 그곳 메주고리에 도착하니 몹시 피곤하였지만 마음은 벽찬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친구는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다는 발현산을 갔다 온 후 저에게도 함께 가보라고 하여줍니다. 저의 건강 상태로는 걸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성모님을 생각하며 친구와 함께 묵주기도를 하면서 발현산 쪽을 향해 갔습니다. 가는 도중,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을 헤메다가 결국 발현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뽀죽 뽀죽한 돌을 밟으며 내가 그곳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이곳에 있을 동안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며 다녀보자는 용기가 났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며 산을 내려오다 돌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질 뻔 했을때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아주면서 산밑까지 부축하며 함께 동행해 주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는 헤어졌는데 막상 산밑에 내려오니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시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산을 내려올 때 나를 도와주었던 모자를 눌러쓴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르며 뒤를 쫓아갔지만 말없이 가던 그 할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는 우리와 함께 온 순례 일행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니 그곳에서 현존하시는 성모님께 더욱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 오신 신부님께서 십자가 산에서 두 명의 젊은이들을 만나신 후 사명을 느끼고 창설하셨다는 그곳에 있는 오아시스 수도원에서는 태양의 기적을 볼 수 있었는데 태양이 코발트색으로 변하면서 서서히 다가오더니 큰 빛으로 형성된 기둥이 땅을 향해 내려오면서 내게 비추이는 경이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

음날은 태양이 빛을 잃어서 제 두 눈으로 직접 태양을 쳐다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큰 빛으로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행이 함께 십자가 산을 향해 갔습니다. 내 건강으로는 도저히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없었지만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으면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 거친 돌산을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가슴 깊이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며 벽찬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사처를 묵상하다보니 어느 덧 산의 정상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거대한 십자가를 바라다보며 나같은 환자의 몸으로 이곳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십자가 옆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 뒤를 돌아보시며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띄우시고 저를 바라다 보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거칠고 높은 돌산을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에 험한 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벽찬 감격으로 은혜로왔던 메주고리에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반느의 성모님이 계신곳도 갔다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뉴욕에 돌아온 후, 몹시 심하게 앓았는데 그 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뉴욕에 오기전까지 저는 춘천에 있는 시립 양노원에서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자 일을 하였었는데 꿈에 춘천 공소라는 곳을 봤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곳인데 꿈에 본 것임.) 그곳의 공소에 있는 사제관 앞에 모셔진 성모님상 앞에서 어떤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기도를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미사헌금을 꺼내어서 헌금통에 넣고 계셨는데 그때마다 딸그락 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그 속에 넣은 미사 헌금들이 크고 작은 갖가지 보석이 되어서 빛을 내며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보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는 음식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두가 금은보화였으며 찬란한 광채를 내며 쏟아지듯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

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해지고 있는 작고 큰 공로들이 천상에서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변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봉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구원에 큰 도움이 되며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상의 재물로 쌓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저에게도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느끼던 다리가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치유되어 일상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알게 된 후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바치게 되었으며 마음에 가득한 평화로 하루 하루를 감사드리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M**

<편집자 주 : 박마리아 자매님은 본인이 아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고아원에서 재봉일을 하며 봉사하고 계셨으며 또한 양로원 노인들의 선종을 위하여 호스피스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매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아픈 다리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설명하며, 치유된 다리를 보여주며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91년도에는 세계 적십자사에서 주는 나이팅게일 상을 받았으며 사회의 많은 일에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동창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문 페이지 추가

영어권에 살고있는 청소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1월호 부터는 영문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13호 부터는 영문판 부록을 함께 실을 예정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전달

그동안 형제 자매님들이 보내주신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비스카에게 잘 전달 되었으며 평화의 모후 센터에서는 그 모든 기도를 축복해 주시도록 메주고리에 순례 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보내주시는 편지에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가입을 도와주세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넓혀가고자 하는 평화의 모후 센터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행되어오던 소식지를 비매품으로 하여 더욱 더 적극적인 복음전파와 함께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형제 자매님들의 후원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후원회 가입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교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주고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 -2001년 12월~2002년 1월-

포틀랜드 : 오미경, 허데레사, 베로니카

메릴랜드 : 성준경 부부

텍사스 : 이마리아, 바오로

텍사스 어스틴 : 황마리아 막달레나

조지아 : 오수산나, 정발바라, 정아네스, 황마리아, M. 데레사,

아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네슈빌 : 유안나

리치몬드 : 박안드레아, 콜롬바

버지니아 : 김아네스

캘리포니아 : 김정자, 김철석 교수, 임실비아, 익명

미시간 : 문경옥, 송난규

뉴욕 : 한엘리사벳, 퀸즈한인천주교회 성령기도회, 신동배, 손로사, 손영규 교수
운멜라니아, 임베로니카, 이로사, 한명숙, 한마리아, 익명, 손데레사
장루갈다, 평화의 모후 기도회

뉴저지 : 이엠마 수녀, 권마리안느, 이데레사

신시네티 : 김정자 / 이튼 로사

필라델피아 : 이봉운 스테파노 부부, 서벨라도, 데레사 부부

미네소타 : 이창제 부제, 최종권 바오로 외 미네소타 공동체

토론토 : 임흥기 바오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콜롬버스 : 남마리아와 콜롬버스 공동체

타코마 : 이어거스틴, 주리아 부부, 정아네스

4월 메주고리에 피정 순례

2002년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 10일)

- 4월 15일(월) New York, JFK공항 출발.(Terminal#1)
- 16일(화) 메주고리에 도착, 석식, 투숙.
- 17일(수) 발현산 순례 (환희,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 한국어 미사
오리엔테이션 및 순례객 인사, 피정강의, 지도사제와의 대화
St. James 성당에서 저녁예절 및 미사.
- 18일(목) 십자가산 순례기도 (14처 기도), 성가 찬양, 피정 강의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성시간.
- 19일(금) 목격증인 비스카와의 만남, 오아시스 수도원 방문, 청십자가에서 기도와 묵상
기도로 치유되는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성시간.
- 20일(토) 시로크브리예로 출발, 티할리나에서 한국어 미사, 요조신부님의 만남
치유예절,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 21일(일)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한국어 미사
부활십자가 및 슬라브코 신부님 묘소 방문, 성가찬양, 나눔의 시간.
- 22일(월) Dubrovnik으로 출발,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및 순례
석식 및 Hotel 투숙
- 23일(화) Dubrovnik 출발,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착, 마리아 대성당 방문, 비엔나에서 1박
- 24일(수) New York JFK 도착.

지도 신부 : 이종호 클레멘스(체리힐 한인천주교회 주임) 신부
이창제 요셉(북미주 종신부제 협의회 회장) 부제
이관우 바로오(체리힐 한인천주교회) 부제

신청 마감 : 2002년 2월 14일 선착순 마감

순례 경비 : US \$1,350 NY JFK출발 기준

(비행기 예약 관계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보스니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여권과 여권사진 1매, 영주권 사본 및 신청서와 비용 US\$80(특별 우편료 포함)을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 따스한 봄날씨에 맞는 복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F50-65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후 보내드립니다.

현지에서의 숙식은 1일 2식이며 현대식 숙박시설에 2인 1실 혹은 3인 1실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미주 평화의 모후센터(남 그레고리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절 취 선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후원금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성명 한글 :	영문 :	세례명 :
주소(주택) :		
전화번호 : 집	직장	
소속본당 :		
납입금 종류 :	<input type="checkbox"/> 월후원금 () <input type="checkbox"/> 3개월 () <input type="checkbox"/> 6개월 () <input type="checkbox"/> 1년 () <input type="checkbox"/> 수시로 ()	
Pay Queen of Peace Center U.S.A.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보내실 곳 (Mail to) :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